

심포의 아이들

<용돈 잘쓰는 법> 3회차 후기



3회차 모임은 아쉽게도
독감에 걸린 아이들이 많아서
개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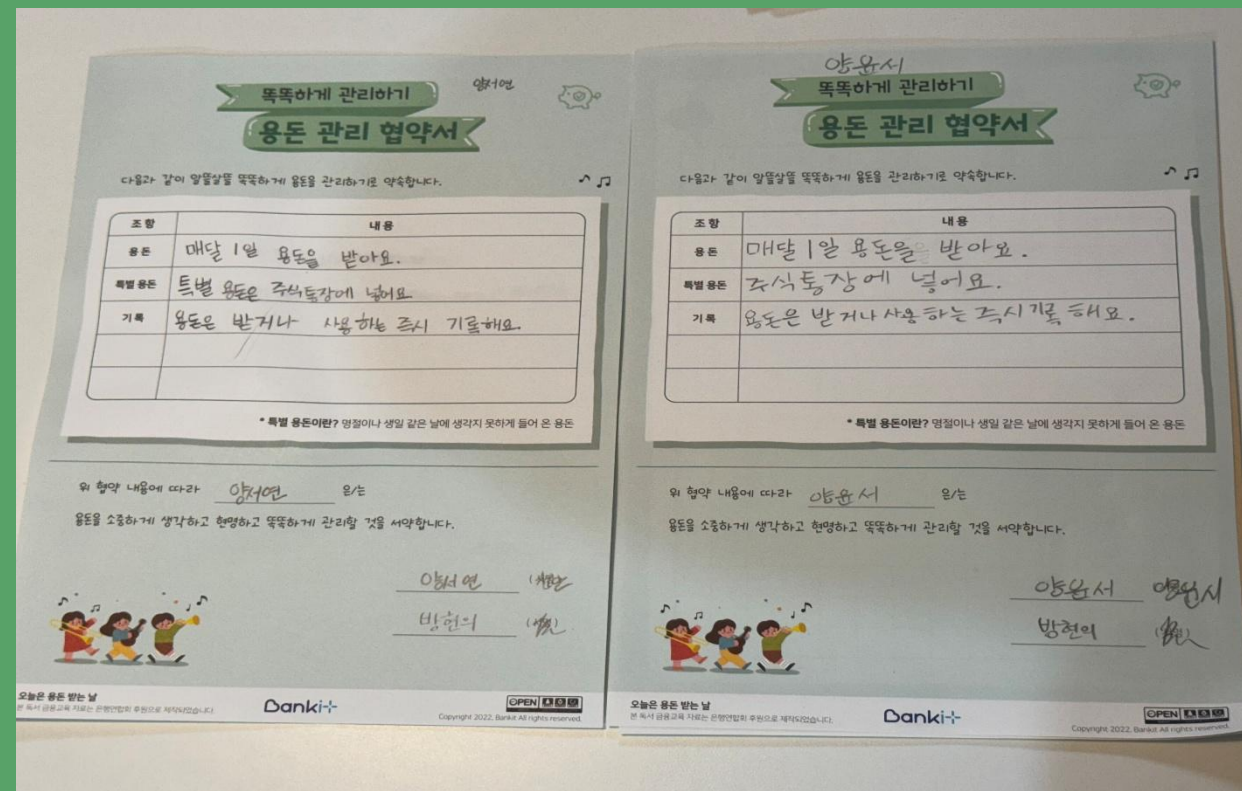


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한뒤,
활동지와 느낀점을 공유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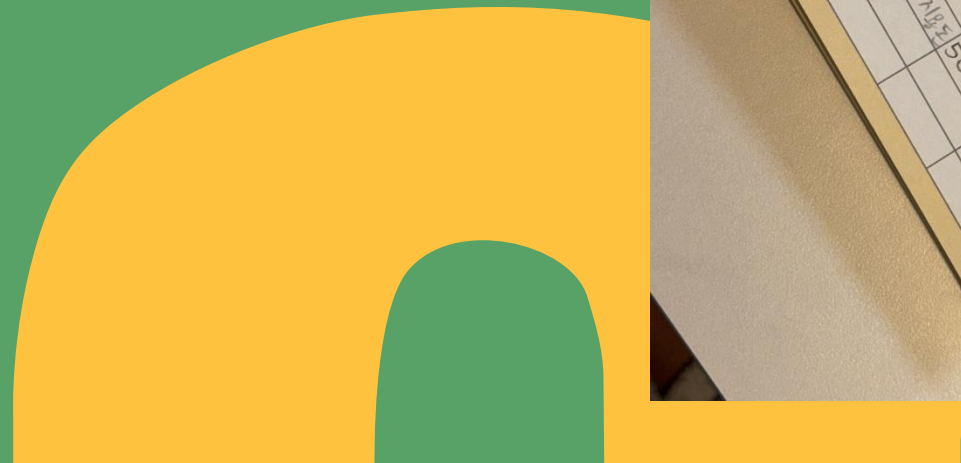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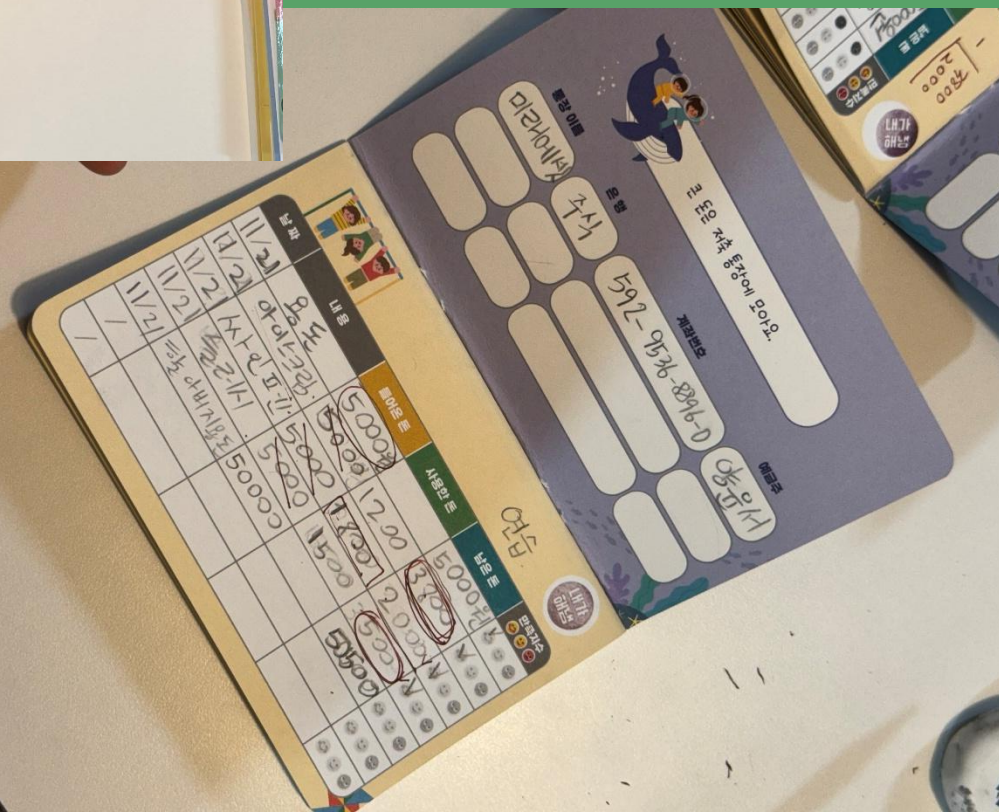
금융 교육 후
아이들의 달라진점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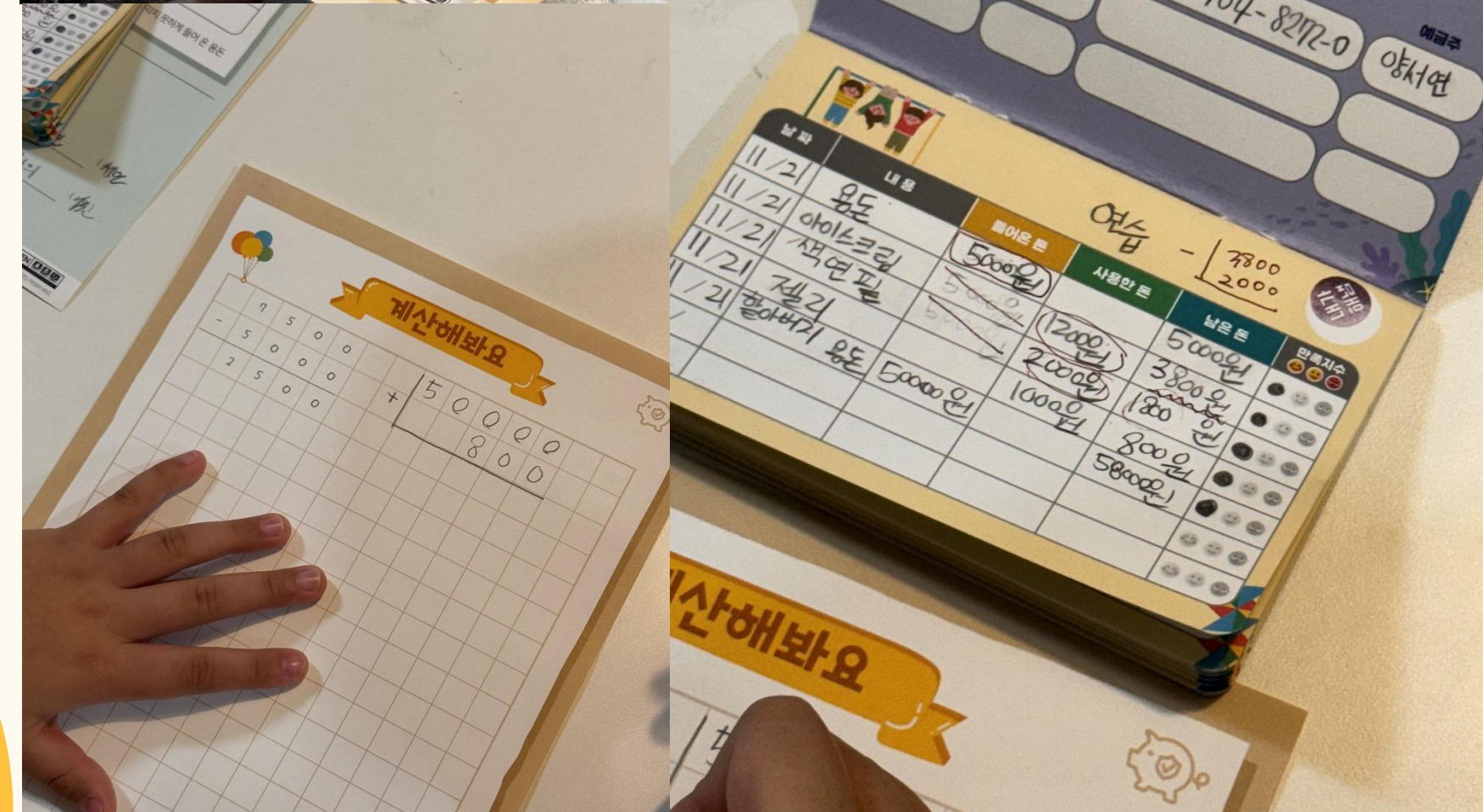
윤서(10살)

용돈기입장을 쓰는 법을 배우고, 12월부터 용돈을 받기로 했어요. 생각보다 어려웠어요. 엄마는 초등학교때부터 할머니가 용돈기입장을 쓰게 했는데 어려운걸 어떻게 했을까요? 12월부터 용돈을 쓰고 좀 더 돈을 꼼꼼하게 쓰는 법을 배우려구요.



서연(9살)

용돈기입장 쓰기가 어려웠어요. 아직 계산을 잘 못해서 엄마가 조금 도와주셨어요. 남은돈과 쓴돈을 잘 관리하기로 했어요. 용돈기입장을 쓰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수 있을것 같아요.





아윤(7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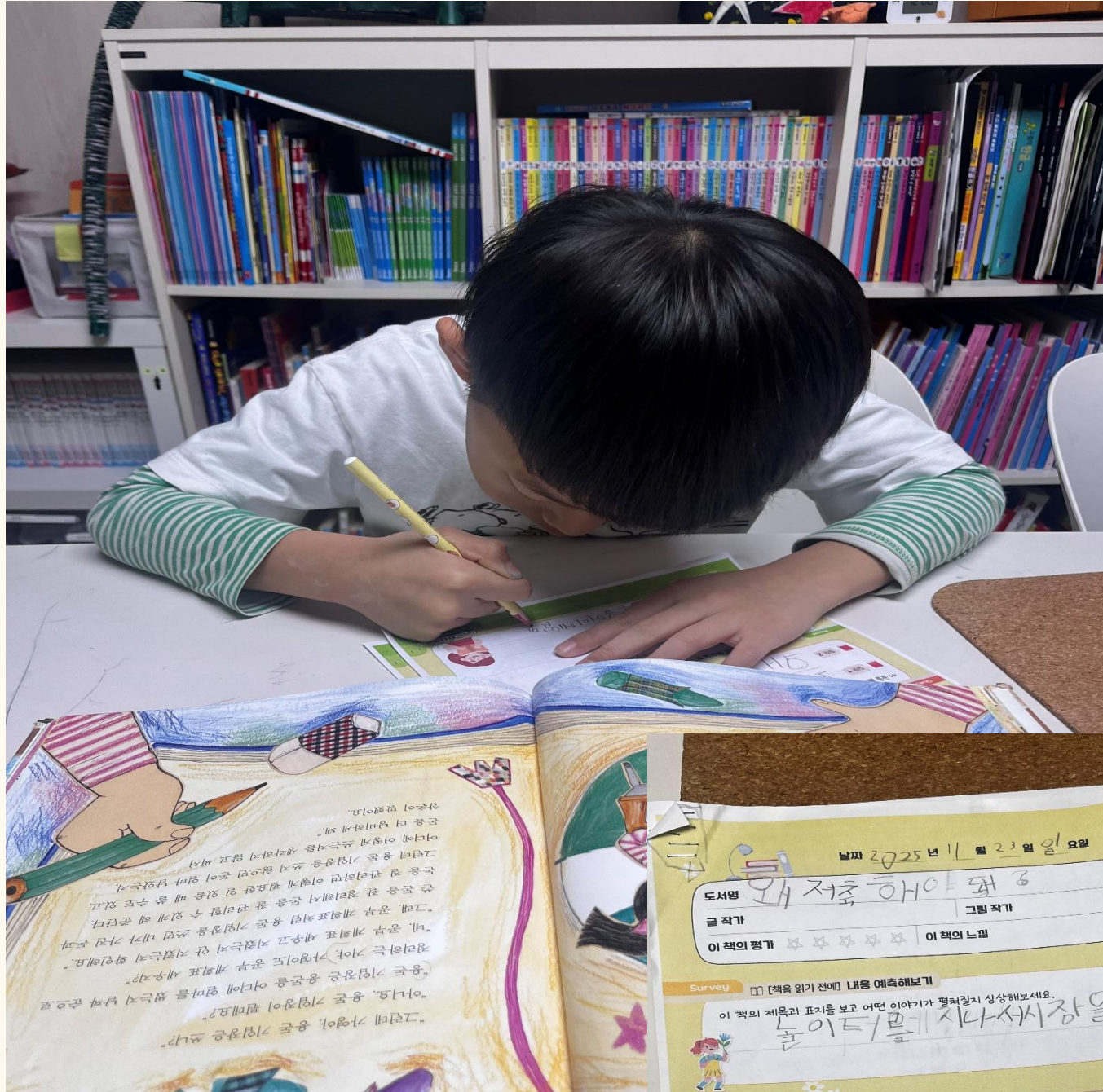
저축해서 필요한거 사거나 장난감을 사고싶어요. 용돈기입장을 쓰면 물건을 살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





채영(7살)

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을 받으면 늘 엄마와 같이 은행에 저축을 하러 갔습니다. 그 때마다 어른이 되면 저기서 돈을 꺼내 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. 학교에 가서 용돈을 제 스스로 관리하게 될 때에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



강희(7살)

저축을 하면 나중에 정말 갖고 싶은 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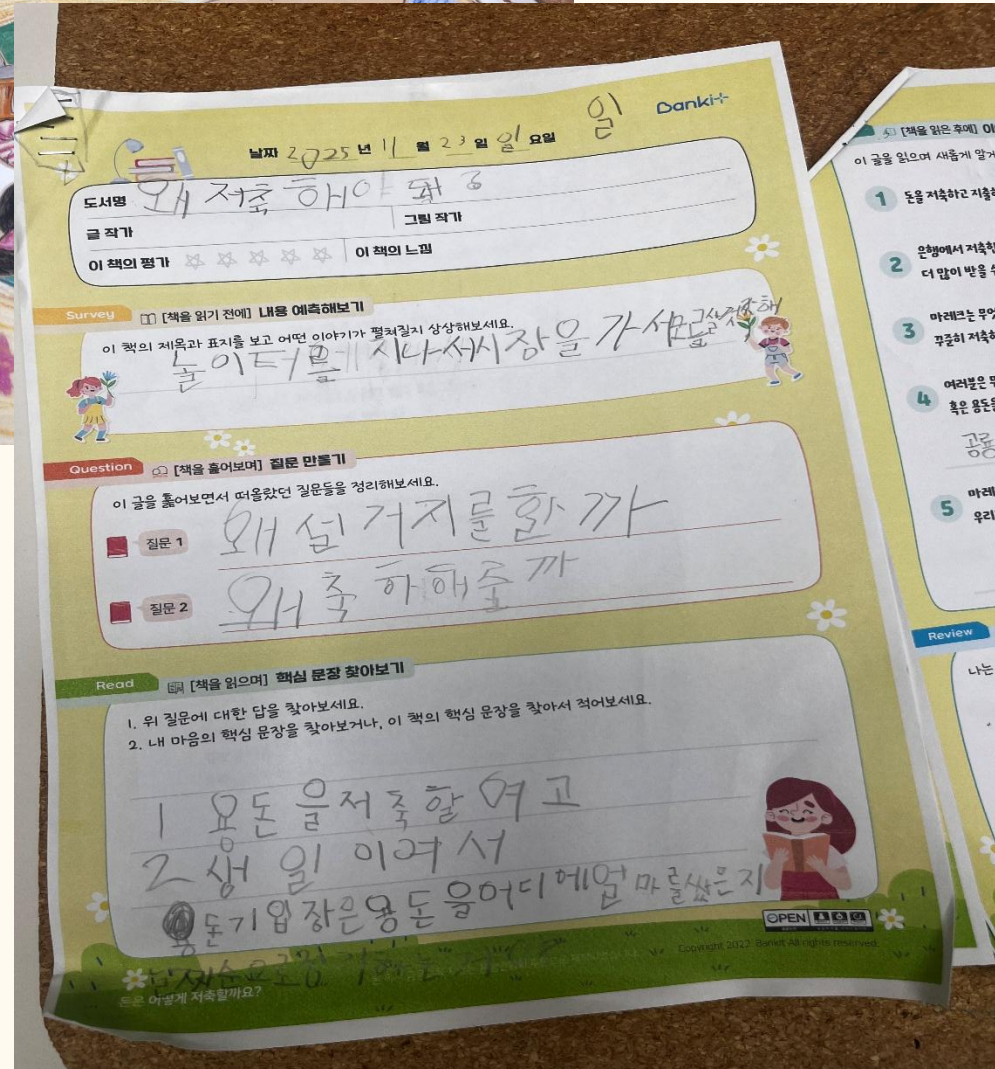
바로 살 수 있어서

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

그리고 돈을 그냥 쓰면 금방 없어지니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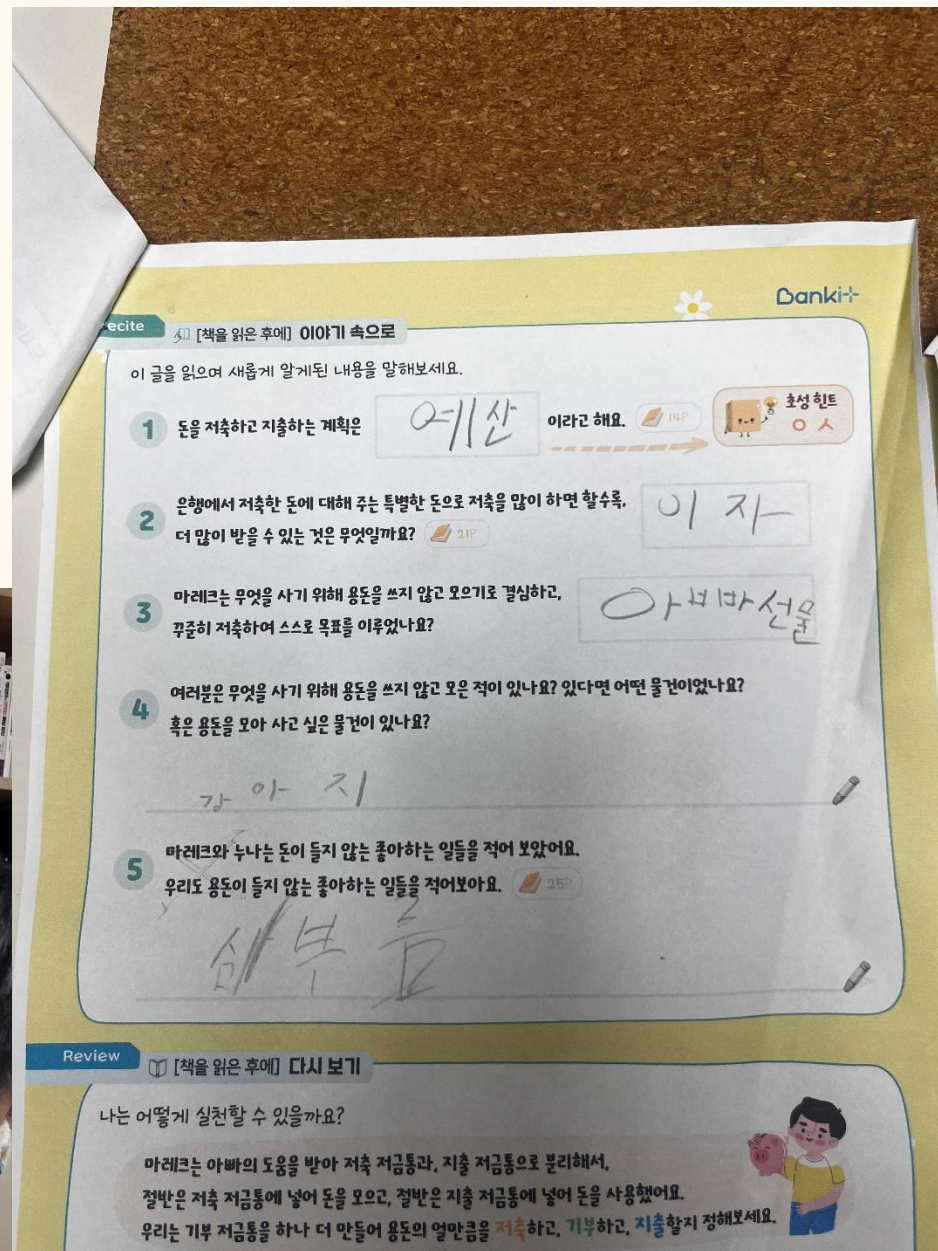
조금씩 모으는 게 똑똑한 방법이라는 걸

알았어요.



정원 (6살)

저축하면 나중에 큰 선물도 살 수
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
돈을 모아두면 갑자기 필요할 때 쓸 수
있어서 편리할 것 같아요.





용돈 잘쓰는 법, 세번째 활동을 마치고.

**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용돈에 대해
아이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수 있는 금융 교육이었어요.
이번회차는 용돈기입장을 실질적으로
활용해볼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어요.
용돈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,
활용하기 좋은 회차였습니다.**